

## 국·공립대 총장 9명중 8명 “등급제 수능 문제 있다”

### 변별력 저하·수도권 집중화 지적

국·공립대학 총장들은 올해 첫 시행된 수능 등급제가 변별력이 떨어져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만큼 등급의 간격을 늘리거나 원점수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광주일보가 지난 12일 전남대에 서 열린 ‘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 협의회’(회장 최현섭 강원대 총장)에 참석한 총장 17명에게 수능 등급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대담을 회피한 8명을 제외한 9명중 8명이 등급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였다. 찬성 의견을 밝힌 총장은 단 한명이었다.

국·공립대 총장들이 변별력 논란을 빚고 있는 수능등급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수능등급제 시행을 둘러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능등급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총장 등은 ‘변별력 저하’ ‘수도권 집중화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립대 이상범 총장과 군산대 이희연 총장은 “변별력이 너무 떨어져 과도한 사교육 부담과 점수 위주의 교육 풍토를 개선하겠다는 등급제 시행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대학 입시제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부터 전반적인 교육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오공대 최환 총장은 “실력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들까지 1등급에 포함돼 이들이 수도권 등으로 몰릴 경우 지방의 거점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힘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제주대 고충성 총장은 “교육부가 등급제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지 모르겠다”며 “원점수 등 수능과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공개하는 등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대 임병선 총장은 “대학 자율에 맡겨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대 장만재 총장은 “등급제 덕분에 일부 학생들이 운으로 좋은 대학 가는 건 문제 있다. 실력 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도록 해야 좋은 제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일한 찬성 입장을 보인 강원대 최현섭 총장은 “99점이나 89점 등은 손헤엄 90점·80점은 이득 아닌가. 어떤 입시제도라도 문제점이 없을 수 없다”며 “약간의 혼란일 뿐이지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 “외유성 해외연수비 반납하라”

### 감사원, 전남도·보성군의회에 초강경 조치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의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전남도와 보성군의회에서 실시한 일부 해외여행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여비 반납을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0월 말 도와 보성군 의회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공무원 국외여행 중 일부가 관공에 치중돼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여비 반납 검토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9~10월께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실시한 ‘공무원국외여행 실태 감사’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이례적인 이번 감사원의 대응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한 초강수로 무 국외여행 중 일부가 관공에 치중돼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여비 반납 검토를 통보했다.

서에서 “지난 2006년 10월과 200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보성군의회 의원 및 직원이 ‘심진 지방자치 시찰’을 이유로 해외여행을 떠났지만 현지 기관은 단 한 곳도 방문하지 않고 관광성 여행으로 일관했으며, 방문국가도 애초 계획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의원과 공무원이 공무원성과 관련 없이 여행을 하면서 국외여비를 수령한 것은 부당하게 금

전적 이득을 얻은 것”이라며 “집행된 여비 5천121만2천 원을 반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전남도에도 질문서를 보내 “지난 2005년 9월 ‘해외축제벤치마킹’을 위해 전남도의회 의원과 직원 등 17명이 체코와 헝가리 등지로 떠났지만, 막상 해당국가의 관련 기관은 방문하지 않았다”며 “공무와는 관련없는 관광성 외유로 보이는 만큼 여비 3천2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충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17대 대선 부재자 투표 첫 날인 13일 콩고와 코트디부아르 등 세계 14개국 선거 담당자 20명이 광주 서구청 국민생활관을 찾아 투표 상황을 참관한 뒤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중앙선관위에서 한국의 선거제도 등에 대해 연수를 받고 있다. /워직기자 jrwi@

## 기름띠 북서풍 타고 남하...안면도·천수만 위험

태안 앞바다에 유출된 검은 기름띠가 강한 바람을 타고 안면도 남단 부근까지 옮겨가 보령해역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해경 방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불어온 초속 10~14m의 강한 바람과 2~4m의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유출된 기름띠가 안면도 영목과 10km 정도 떨어진 외파수도 인근까지 밀려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름띠는 나치도 부근에서 점점이 퍼들던 기름띠가 바람에 밀려 이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합쳐진 것으로 방재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서해중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강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 안면도 남단 해역까지 내려간 기름띠가 보령 수역과 천수만으로 유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방재당국은 해경 함정 등 19대를 동원해 야간 방제에 나서는 등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 기름띠가 양식장 밀집지역인 가로림만으로 유입되지 않았으며 전날 안면도 북단 토도 부근에 나타났던 기름띠도 집중 방제로 모두 사라졌다.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어장 피해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충남도는 사고이후 지금까지 소인, 이원, 원북면 등 태안 5개 면지역 227곳에서 2670ha, 서산 대산읍, 팔봉면 등 3개 읍면 112곳에서 171ha의 어장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기상 악화로 인한 해 사고 요추선에 대한 철관 및 대기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해상 크레인 등 동북방으로 19km 떨어진 장안서로 피항시켰다. <대전일보 특별취재반>

유입지역 대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ac.kr

진남과학대학  
http://www.jinam.ac.kr

## “鄭-李-文 단일화 하라”

### 대선 D-5 재야·시민사회단체 이어 여성·상인대표도 촉구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지만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는 연합정부 구성과 단일화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은 채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관련기사 3·4면>

재야인사와 5월 단체·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당사 점거 농성에 이어 여성계 및 시장상인 대표들까지 정치권을 질타하며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의 민주연합정부 수립”을 위해 대한국민당과 창조한국당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사흘째 양당 중앙당사에서 농성을 벌여온 광주·전남 22개 재야 및 시민사회단체, 5월 단체 대표들은 13일 농성을 마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단일화 노력을 계속해 부패수구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4대 주요 시장인 남광주·대인·말바우·양동시장 상인연합회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평화민주개혁세력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창조한국당은 모두 민주정신과 호남인의 지지를 기반으로 탄생했고 성장했다”며 “고자 국회의원 몇사람 자리 보전해주겠다고 광주정신을 버리는 것은 참다운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전남지역 각계 여성총 대표1천219명으로 구성된 ‘가죽행복 공동체를 이룬다’는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리멸렬한 분열사태를 맞고 있는 민주평화개혁세력은 사측생의 신념으로 반부패 대연합 및 단일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 조선대학교, 경쟁력에 날개를 달다!

조선대학교가 경쟁력에 날개를 달다!

2008학년도 1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2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3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4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5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6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7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8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9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10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11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12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13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14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15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16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17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18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19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20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21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22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23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24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25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26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27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28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29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30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31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32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33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34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35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36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37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38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39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40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41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42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43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44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45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46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47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48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49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50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51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52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53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54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55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56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57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58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59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60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61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62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63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64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65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66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67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68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69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70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71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72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73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74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75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76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77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78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79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80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81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82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83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84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85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86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87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88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89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90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91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92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93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94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95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96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97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98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99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2008학년도 100학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조선대학교